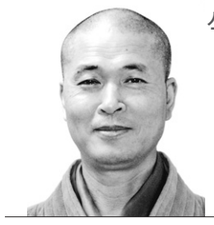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무엇이 순수한 영혼인가

학승이 물었다. "대중이 운집했습니다. 무슨 일에 대한 것을 함께 담론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오늘은 나무를 끌고 와서 승당을 세워볼까한다."

학승이 물었다. "그것은 결국 학인을 교화하는 일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주사위도 놀이도 모르고 장행(長行)도 알지 못한다네."

問 大衆雲集合談何事 師云 今日拽木頭豎僧堂 云莫只者箇便是接學人也無 師云 老僧不解雙陸 不解長行

쌍육과 장행이 당시의 놀음판이나 게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 1200년 전의 일이라 불분명하다. 여기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쌍육을 주사위로 풀어보았다.

선원(禪院)에서도 규율을 풀고 편안하게 쉬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있다. 바로 설날 같은 때이다. 이때에는 선원마다 다르지만 어떤 선원은 그냥 하루를 조용히 쉬기도 하고, 혹은 차담을 먹으면서 담론하기도 하고, 어떤 선원은 편을 갈라 윷놀이를 한다.

조주 선사가 있는 절에서도 명절 같은 날을 맞게 되었던 모양이다. 대중이 모이고 큰스님을 불렀다. 큰스님이 오시자, 어떤 학인이 무엇에 대하여 함께 담론하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오늘은 나무를 끌어와 승당 짓는 일을 담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학인이 "그것은 결국 교화사업과 관련된 일 아닙니까? 스님, 오늘은 편히 쉬면서 놀이나 담론을 즐기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말하자, "나는 그런 놀이에는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몰라"라고 잘라서 말한 것이다.

사람을 규율로 너무 가두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래서 일 년에 한번 정도는 휴식을 허락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도 110세 이상의 노화상 조주 스님은 한사람이라도 더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이다. 오늘날 걸식을 업으로 하는 수행자는 조주 화상의 이 정신을 깊이 본받아야 한다. 골프, 호화 승용차, 화려한 외국 여행 등은 모두 수행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언젠가 고통으로 되갚을 날이 있을 것임을 명심하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인체의 진실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춘하추동이야."

학승이 물었다. "그 말씀은 학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너는 나에게 인체의 진실을 물었잖아."

問 如何是眞實人體 師云 春夏秋冬 云與麼即學人難會師 你問我眞實人體

인체(人體) 그 자체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 몸의 진실은 무엇인가? 춘하추동과 같다. 태어날 때는 봄이고, 성장기는 여름이며, 중년기는 가을이며, 노년기는 겨울과 같다. 계절이 어김없이 다가오듯 인생 또한 어김없이 질병, 늙음, 죽음이 다가온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는다. 죽으면 원래 없는 곳으로 되돌아간다. 죽은 뒤에도 나는 없다.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몸은 지수화풍 4대가 인연을 따라 만들어진 임시적 존재이다. 순수한 영혼이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잠시 빌려 입은 영혼의 옷이다. 시간이 되면 옷을 벗고 떠난다.

순수한 영혼은 무엇인가? 부처가 잠자고 있는 영혼이다. 우주의 근원이다. 부처의 심성이 있어서 순수하다고 말한다. 어찌해서 부처가 잠자게 되었는가? 만물은 부처의 분신이다. 만물은 깨어날 필요 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중생은 영혼이 있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다. 만물은 깨어나야 자기를 안다. 중생은 잠에서 깨어나 자기를 알 수 있다.

이 허망한 육신이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큰 스님 법문에 이 몸은 제분기(製糞機)라 했다. 순수하게 이 몸이 하는 일은 평생 똥을 만들어내는 일 뿐이라는 말이다. 참 뜻 깊은 법문이다. 그 제분기에 명품을 걸쳐놓고 근사한 모자를 쓴다고 냄새가 안 나겠는가? 온갖 격식을 갖춘다고 고귀해질 것인가? 모두 헛된 만족이고 자기도취이다. 진실이 잠자는 영혼이 추구하는 세계는 헛된 세계이다. 욕망의 세계는 추구하는 만큼 고통이 따른다.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중생의 잠에서 깨어나면 즉시 붓다의 세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12〉

팔정도-④정업(正業)

일체의 잘못된 행동 벗어난 신체적 행위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팔정도의 네 번째 항목인 정업(正業)이다. 정업은 총괄적으로 바른 신체적 행위를 뜻한다. 즉 몸으로 지을 수 있는 나쁜 행동을 자제하고, 선(善)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간혹 불자들조차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업은 '직업'에 관한 수행덕목이 아니다. 행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카르마(karma)가 한문으로 '업(業)'으로 번역됐고, 직업(職業)의 '업'과 정업의 '업'이 같은 한자(漢字)이다보니 정업 안에 직업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혼동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엄밀히 말해 직업 또한 인간의 신체적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직업에 관한 부분을 정업에서 떼어내 정업의 다음 항목인 정명(正命)에서 설명했다. 고대 사회도 직업은 중생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어떠한 인간의 행위보다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러한 팔정도의 흐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정업에서 말하는 바른 행위는 구체적으로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생(殺生)과 남의 것을 훔치는 투도(偷盜), 음란한 행위의 사음(邪淫), 이렇게 세 가지 몸으로 짓는 악업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단지 이러한 악업을 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애호하고, 재물과 부처님의 교법 등을 아끼지 않고 베풀고, 건전한 남녀관계를 지키는 것이 정업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설한 내용이고, 출가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내용이 추가된다. 출가자에게 불살생에 관해서는 작은 미물이라 해도 죽여서는 안 되고, 불투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훔쳐서도 안 되지만, 비록 자기 것이 도둑맞았다 해도 성내거나 다시 찾으려 하는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불사음에 관해서도 출가자들에게는 일체의 남녀 간의 행위는 금지돼 있다. 지금도 남방불교의 출가자들은 이성과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 계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이 정업도 팔정도의 세 번째 덕목인 정어(正語)와 마찬가지로 정사유(正思惟)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즉 정어와 정업은 정사유의 결과물인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이 저지르는 대표적인 악업을 십악(十惡)으로 묶었는데, 살아 있는 것을 해치는 것[殺生]·남의 것을 훔치는 것[偷盜]·음란한 행위[邪淫]·거짓말[妄語]·헛되이 꾸미는 말[綺語]·악담[惡口]·이간질 하는 말[兩舌]·성내는 마음[貪心]·화내는 마음[瞋心]·어리석은 마음[[癡心]의 열 가지이다. 이 중 앞의 세 가지는 몸으로 짓는 악행이고, 그 다음 네 가지는 말로 짓는 악행이며, 마지막 세 가지는 생각으로 짓는 악행에 속한다. 이것을 신구의 삼업(三業)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불제자들에게 이 열 가지 악업을 열 가지 선행으로 바꿀 것을 설법했다.

팔정도의 정사유, 정어, 정업은 각각 의업(意業), 구업(口業), 신업(身業)과 대응을 이룬다. 따라서 정사유는 생각으로 짓는 바른 행위이므로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어리석은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이는 탐진치 삼독(三毒)에서 벗어난 것을 뜻한다. 즉 번뇌의 왕이라고도 칭하는 삼독에서 벗어나야만 결과적으로 정어와 정업을 이룰 수 있다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가르침인 것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탐하거나, 남에게 원한을 품게 되면 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혹은 원한을 갚으려고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과 이간질을 하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처럼 입으로 짓는 악행과 몸으로 짓는 악행의 뿌리가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사유가 들어서면, 자연히 정어와 정업도 그 결과로서 성취될 수 있다. 즉 정사유라는 참 지혜로써 일체의 잘못된 행동을 끊어야만 청정한 신업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⑰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율장 마하왁가(大品)〉

사슴동산에서 수레바퀴를 굴리시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다. 당시까지, 부처님께 귀의한 제자들은 60명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60명의 제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뒤, 저 유명한 「전법(傳法) 선언」을 하시었다.

나는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읽을 때마다, 쿵쾅쿵쾅 가슴이 뛰어오름을 어쩌지 못한다. 이 「전법선언」만은 그 중의 한 구절만이 아니라, 온전히 한번 더 읽어보고 싶다. 소리높여 외치고 싶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 그대들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 다만 그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웰라의 세나니마을로 가야겠다."(일아스님 편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72-73쪽)

중생들은 '불바라기'이다. 부처님을 향해서만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중생들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엄하신 명령을 내리시고 계시지 않는가. 나를 바라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전법선언」은 팔만대장경의 정수(精髓)이다. 팔만대장경은 이 「전법선언」 안으로 다 수렴되고 만다. 우리가 어떤 경전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독법(讀法)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경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전법선언"을 겹쳐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전법선언」이 떠올라야 한다는 말이다.

아, 그렇게 중생들에게 법을 전해 주려면 뭘 좀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직 너무나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답니다. 대개 이렇게 반문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이 「전법선언」을 기록하고 있는 율장 마하왁가에서는 당시의 60명 제자들이 모두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이 「전법선언」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셨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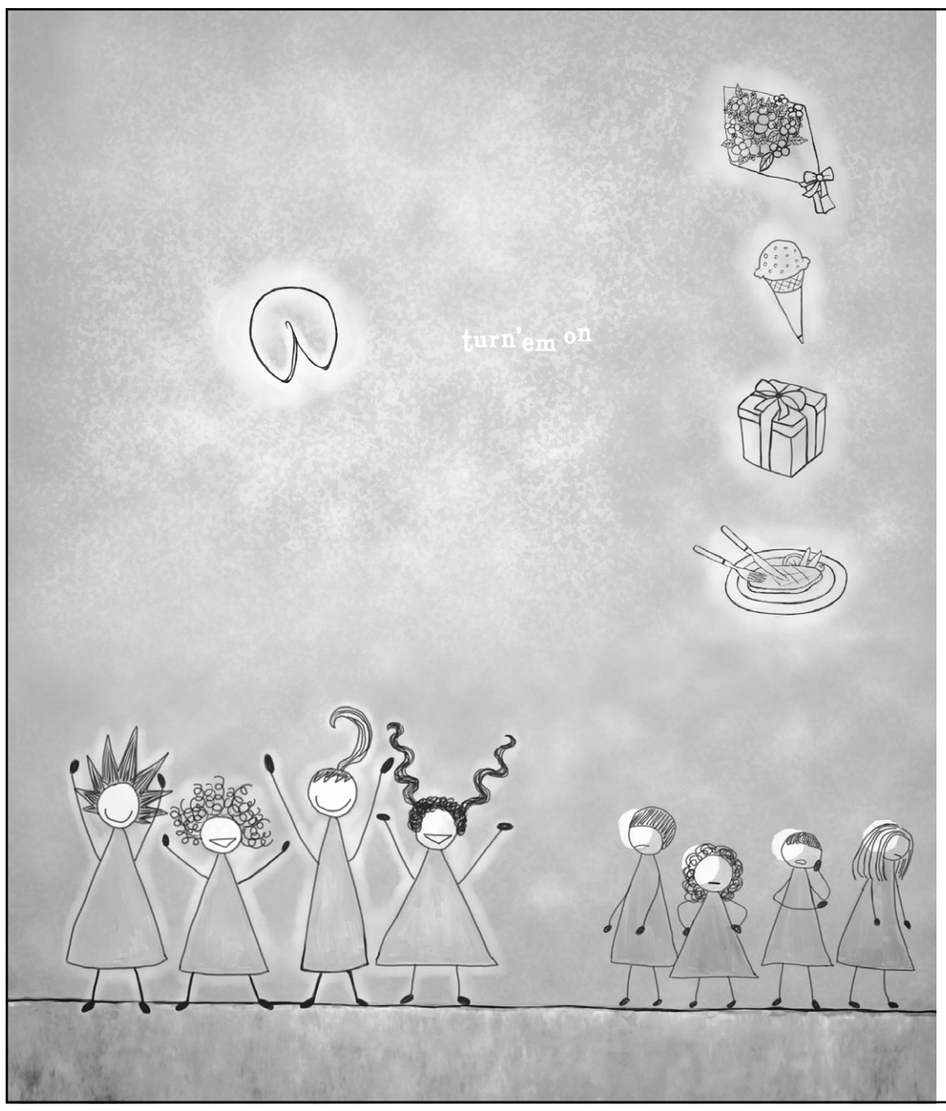
그렇지만 나의 심증(心證), 나의 해석학적 상상력은 좀더 다르게 생각해 보라 말한다. 비록 부처님으로부터 친히 훈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보다는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율장 마하왁가에 따르면, 그 당시 제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림 · 박구원

지금 우리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불교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성제와 팔정도와 같은 기본교리는 물론이고,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익혔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하신 부처님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일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막히는 데가 나오고,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때 책을 찾아보자. 또 스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요청하자. 그러면 좀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고, 더욱 잘 전할 수 있게 되리라.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데 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만 보는 제자들보다는 당신을 등지고 서서, 중생들을 향해서 걸어가는 제자들을 더 이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것이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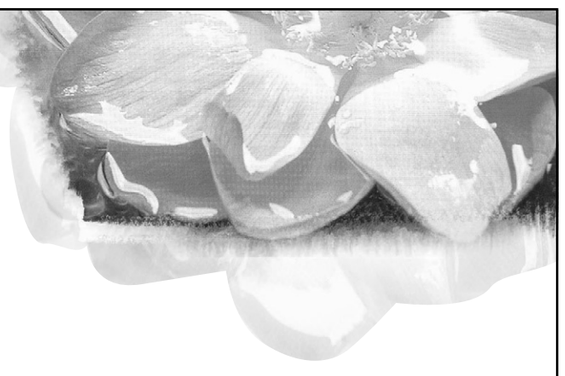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